

「청년」 문헌해제 및 신학적, 기독교윤리적 의미*

이장형 (백석대학교, 교수)

- I. 연구의 의미와 목적
- II. 「청년」 문헌해제
- III. 일제강점기 「청년」 발행의 역사적 의의
- IV. 「청년」 발행의 신학적, 기독교윤리적 의미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5.09>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0568).

• ABSTRACT •

Implications of Christian Ethics in the Rule of Japan through “The Young Man”(1920-1940)

Prof. Lee, Janghyung (Baekseok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ablishing Christian ethics in terms of accepting Western thought in Korea through the YMCA’s journal “**The Young Man**.” This journal was published and distributed steadily for over 20 years throughout the cultural political period in the 1920s and wartime in the 1930s before the Korean liberation. “**The Young Man**” was an institutional magazine of the YMCA, to help young Christians reflect on their faith identity and duty as a Christian general magazine, which maintained a fair balance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The historical and ethical mean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agazine promoted “faith identity and duty” to young Korean Christians at a time when Saito Makoto was appointed as the third governor, while advocating for cultural politics and trying to implant colonial identity as an ideology to Koreans. Second, “**The Young Man**” was timely published when the YMCA needed “faithful education literature and guidelines” while gradually taking root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and expanding in size. Thir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Young Man**” was a magazine published for over 20 years. It was a literature that became “the ideological pillar leading the faith and duty of young people” before liberation.

Key words: “The Young Man”, YMCA, Christian Ethics, Japanese Ruling Era, Media Censorship, Cultural Policy

I. 연구의 의미와 목적

본 연구는 1920년에 창간되어 1940년까지 20년 동안 발행된 YMCA의 기관지 「청년」을 문헌해제하고 신학적, 기독교윤리학적 의미를 분석하여 현재적 함의를 제시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자는 「청년」에 관한 연구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논문은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청년」 문헌해제 및 기독교 신학적, 윤리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적 기독교윤리사상의 시발점은 어디에서 읽어낼 수 있는가? 서세동점(西勢東漸)과 일본의 아시아주의 및 대동아(大東亞)주의의 세력이 왕성하던 한국의 근대사회에서 기독교윤리학의 수용 및 이해 양상과 관련하여 한국적인 기독교윤리사상을 추적하는 일은 의미 깊은 과업이 될 수 있다. 1875년 9월 일본 군함 운요호 사건을 겪은 조선은 약 반년 후인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을 통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마감하고 개국으로 체제를 전환했으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연이어 수호조약을 체결했다. 바로 이때부터 한국은 오리엔탈리스트(orientalist)와 옥시덴탈리스트(occidentalis)가 혼재된 개화기에 진입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단순하게 서구문명의 유입 뿐 아니라 서구문화와 근대사상이 유입된 시기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점이 도출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으로서, 개화와 더불어 한국에 도래한 기독교는 5백년 이상 견고하게 다져온 조선의 유교와 전통 재래 종교인 불교, 도교, 민간 무속신앙 등이 혼합된 상황을 극복해가며 기독교윤리를 정착시키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사실이다. 초기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종교개혁에 비견할 수 있었을 정도로 복음전파와 아울러 생활개혁에 솔선수범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금주금연, 축첩(蓄妾) 금지, 노비 면천, 반상(班常) 신분 혁파, 데릴사위제와 민며느리제 금지, 조혼 및 수양남매 결연

폐지, 투전 및 기방출입 엄금, 마약퇴치, 음담패설의 악덕 제거 등¹⁾의 숭고한 노력과 관습 개선은 한국적인 기독교로 체화해가는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었던 값진 결실이었다. 192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사회를 선도하는 선구자적 개혁정신을 발휘하여 각계 각층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당시의 문호 춘원 이광수는 1917년 7월에 『青春』에 수록한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를 통하여 기독교가 한국에 남긴 업적들로서 “한국에 서양의 사정을 알린 점, 사회도덕 갱신, 근대화된 교육 보급, 남존여비 사상 타파, 한글보급 등²⁾ 일곱 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광수는 점차 한국교회가 초심을 떠나 구령과 복음사역을 지상명분으로 앞세워 삶의 현장을 외면하는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기독교가 현세와 내세를 분리함으로써 “양극화 현상, 교회의 계급화, 교회지상주의, 교역자의 무지, 무속신앙 등³⁾ 이상 현상을 초래했다고 혹평했다.

기독교가 구심점 역할을 하여 크게 일으킨 3·1운동을 전후하여 교회는 외부에서 진입하는 지적인 분위기의 고양, 반미적(反美的) 정서, 강점기의 경제적 수탈과 시련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난황에 직면했다. 당시 유물론과 무신론은 문화정치의 틈새를 비집고 침투해들어와 기독교신앙을 위협했으며 점차 과학만능주의, 성적 방종과 사치, 향락과 윤리적 탈선이 심화되고 있었다.⁴⁾ 이러한 시대적 정황에서 1930년을 전후하여 교회의

1) 안수강, “정경옥(鄭景玉)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신학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43(2019), 156.

2) 이광수,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青春』 9(1917), 13-18.

3)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敎會의 欠點,” 『青春』 11(1917), 76-83. 이광수의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와 “今日朝鮮耶蘇敎會의 欠點”이 1917년 같은 해에 두 달 사이로 발표된 것은 기독교의 전후의 태도가 뚜렷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대조하려는 의도였다. 두 글을 비교해볼 때 이광수는 1917년경부터 변화의 동향을 예의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4) 이장형, 안수강, “『그리스도 모범』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윤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6(2015), 94-95.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문헌들이 다수 출판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의 저서 『야소의 사회훈(Social Principles of Jesus)』⁵⁾을 꼽을 수 있다. 윤리적 주제를 담은 다양한 서적의 출간은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 입각하여 필자는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사상과 신학 체계에 있어 기독교윤리학이 어느 시점부터 정교하게 자리매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져본다. 본 연구는 해방 전 YMCA에서 1920년대 문화정치기와 1930년대 전시체제를 거치며 20년 이상 꾸준히 출판하여 보급한 기관지 「청년」을 통해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 측면에서 기독교윤리학의 정립과 한국적 토착화 과정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는 거시적인 틀에서 두 가지의 목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YMCA 기관지 「청년」을 통하여 기독교 신학사상과 직결된 담론들, 특히 윤리적인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논점들을 논증하고자 한다. 현대신학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당시의 신학적, 기독교윤리학적 논의들은 논리적 체계성이 부족하고 한국적 신학사상이라기 보다는 성경을 강해한 교양서적에 가까우며 더군다나 서양 기독교 소개와 해석에 치우친 문헌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차적인 담론들이 그 이후 토착화된 한국신학과 기독교윤리의 근간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점에서 그 논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함축적인 의미들을 재음미하는 일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한국사회에서의 기독교윤리학 수용사의 점진적 확대와 심화된 윤리 담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윤리학 역사에 관한 연

5)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촉구했고, 7장에서는 사회봉사에 대해 강조했다. W. Rauschenbusch, *Social Principles of Jesus*, 고영환 역, 『耶蘇의 社會訓』(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0), 116-137.

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주제들 역시 한정적이다. 20여년간 지속적으로 발간한 기독교 저널 분석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공동체들과 기독교를 수용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해에 관하여 연구한다면 한국의 기독교윤리학 논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연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혹이라도 몇 세대 전 일제강점기의 문헌연구라고 해서 결코 무의미하다거나 진부한 주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연구동향과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 기독교윤리학이 어떻게 수용되고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자들의 연구실적물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점에서 YMCA 기관지 「청년」에 나타난 기독교윤리를 분석하는 작업은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담론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청년」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하회정의 “3·1운동 이후 담론공간의 탈정치화와 젠더에 대한 사회적 논의 -YMCA·YWCA의 「청년」을 중심으로-”와 안수강의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靑年」(1921-1940)을 중심으로”등 두 편 정도를 꼽을 수 있다. 하회정은 정치문제와 성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연애·결혼·성·사랑, 여성해방운동, 경제적 독립과 직업교육, 대중교양운동과 가정생활개선 등”⁶⁾의 제한된 주제만을 고찰했고 안수강은 「靑年」 창간호에 비중을 두어 “세계화 추구, 청년교육과 인재양성, 청년들의 사회진출, 사회개혁의 사명, 기독교신앙 고취 등”⁷⁾을 살핍으로써 그 맥락에 있어 한계점을 보여준다. 단편적 연구를 넘어서서 본 연구는 20년간 꾸준히 발행된 「청년」 전체의 내용에 대한 연속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전 권을 섭렵하여

6) 하회정, 3·1운동 이후 담론공간의 탈정치화와 젠더에 대한 사회적 논의-YMCA·YWCA의 「청년」을 중심으로, 『韓國教會史學會誌』 40(2015), 169-213.

7) 안수강,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靑年」(1921-1940)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9(2022), 631-667.

기독교윤리학적인 담론을 포괄성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 첫 번째 연구에서는 기독교윤리학의 수용과 이해 양상을 고찰함에 있어 「청년」에 수록된 글들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체험한 당대 목회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의 윤리적 관심의 폭을 살펴볼 것이다. 제1차로부터 제10차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연구할 내용과 주제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즉 연속적으로 「청년」지의 글들을 분석하여 기독교윤리적 담론을 확장해 가고자 한다.

〈표 1〉 주제별 연구내용(1~10차)⁸⁾

회차	연구 내용	관련 학문
1	「청년」 문헌해제 및 기독교신학적, 윤리학적 의미	총괄검토
2	기독교인들의 사회개혁과 평화주의	사회학
3	기독교인들의 사회정치사상(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정치학
4	기독교인들의 직업관(노동, 직업, 윤리관)	직업윤리
5	기독교인들의 경제관, 경제윤리 분석	경제학
6	기독교인들의 농촌개발과 환경의식	역사학
7	기독교인들의 인격 양성 및 교육관 분석	도덕학, 교육학
8	기독교인들의 여성, 여성운동 분석	여성운동
9	기독교인들의 결혼관과 가정윤리 분석	가정윤리
10	기독교인들의 사회변혁과 사회운동 분석	사회학

II. 「청년」 문헌해제

1914년 9월부터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현 서울YMCA)는 「중앙청년회

8) 총 10차에 걸친 연구과정에서 「청년」(1920-1940) 전체 문헌을 검토한 후 실제분석 과정을 거쳐 재분류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보) (中央青年會報)란 제호의 잡지를 발간하였는데 YMCA 회보와 유사한 성격이었다. 그러다 1921년 3월부터 제호를 「청년」(青年)으로 교체하고 중앙청년회와 조선기독교청년회 연합회(현 대한YMCA연맹)의 연합사업으로 발전되면서 회보의 성격을 넘어서서 월간종합지로 발행되었다. 「청년」은 1940년 12월 일제의 압력으로 폐간될 때까지 20년에 걸쳐 발행되었으며, 기독교신앙심을 바탕으로 민족계몽운동과 청년운동을 이끄는 핵심적인 사명을 감당했다. 초기에는 브로크만(Fletcher S. Brockman) 선교사가 발행을, 홍병선 목사가 편집을 담당했으며 종로에 소재했던 ‘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 青年雜誌社’에서 출판했다. 편집인이 인쇄를 담당했고 종로에 있던 ‘青年會工業部印刷科’에서 제본했다. 표지에는 세로줄 대형 활자체로 한자 서명이 표기되었으며, 마지막 쪽에 소개한 영문 목차에는 영문 서명 “The Young Man”이 별도로 기록되었다. 제3종 우편물로 분류되어 주문과 배송판매를 시행했고 가격은 할인제도를 적용하여 한 부 당 20전, 여섯 부(반년 치)는 1원 10전, 열두 부(일년 치)는 2원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배송방식 외에도 서울과 향촌 각 지역 서점에서 별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로써 「청년」은 YMCA회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사상과 기독교 사상에 접하고자 하는 젊은이들과 지식층에 폭넓게 보급된 저널로 발전했다.⁹⁾ 첫 한국인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한 김필수는 창간호 서문을 통해 “時代의 變遷에 推移호야 基督教主義를 民族의 文明 向上的 宣導호기 爲호의 所以로다.”¹⁰⁾라고 기술하여 기관지 「청년」이 기독교사상에 기초하여 민족계몽과 문명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동아일보」 주간 장덕수는 청년층은 이 사회를 위한

9) “청년지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청년」 영인본 서론에서 발췌(영인본 제작 의의에 밝힌 내용).

10) 김필수, “首辭,” 「청년」 창간호(1921), 1.

이상이자 사명이며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저널에 대하여 “使命이 偉大하며 그 職責이 重大함을 알고”¹¹⁾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문명진화에 공헌하고 청년들의 활동을 이후 세대에 전해주는 문서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은 일제 식민치하 한국 YMCA가 교육 및 문화운동을 전개하려는 방침으로 마련한 출판사업의 역작으로 사회이념과 소통하고 기독교운동을 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광범위하게 다양성을 갖춘 집필진의 글들을 수록했다. 기독교계 중진들뿐만 아니라 정인보, 최남선, 이광수, 윤치영, 변영태, 하경덕, 조만식 같은 저명한 인사들의 글들을 발표함으로써 대중적인 공개는 단으로서의 책무를 담당했다. 총독부의 사전 검열 작업으로 인해 상당한 부분이 삭제되거나 아예 몰수당하는 수난을 당하면서도 20년간 지속적으로 출판된 「청년」은 일제하 민족운동의 역사적 자료로서, 또한 청년들의 역사적 각성과 참여를 독려한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헌은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에서 기독교청년들의 신앙적 발자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료의 위치를 점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청년」의 가치가 돋보이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비평적 논문들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지에 게재된 기독교사상에 관한 논문들의 목차만 일별(一別)하더라도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신학계가 섭렵한 토착화신학, 정치신학, 민중신학에 관한 주제들이 이미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청년」에 수록된 글들을 분류하면 ‘청년 주역의 사회개혁운동’, ‘종교사상과 사회운동 & 평화주의 실현’, ‘정치사상(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직업관(노동, 직업, 윤리관)’, ‘경제관과 경제윤리’, ‘농촌운동과 환경의식’, ‘인격형성과 교육’, ‘여성운동’, ‘결혼 및 가정윤리’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주제들과 관련된 의미있고 비중 있는

11) 장덕수, “축 「청년」 창간, 「청년」 창간호(1921), 2.

글들을 발췌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주제별 글 제목 및 저자¹²⁾

글의 주제	글의 제목 및 저자
청년 주역의 사회개혁운동	이대위-청년과 사회/박영효, 이상재, 김명식, 장덕수, 김중우-금일 우리 청년에게 간절히 고하노라/반도산인-청년의 수양훈/이갑성-청년의 의지/이상재-청년이여/변영서-현대 청년의 각오/김창제-깨어라 청년들/홍병선-난국에 처한 청년/주요섭-금일 조선 청년의 변민과 그 타개책/채필근-청년의 생명/안재홍-현대 조선인과 기독교 및 그 청년의 지위/추범생-기독교 청년운동에 대하여/윤치호, 양주삼, 여운형-신년을 맞는 청년에게/한산-톨스토이의 사회개조론/이순기-조선의 현상과 각자(覺者)의 사명
종교사상과 사회운동 & 평화주의 실현	유경상-청년의 종교/강매-종교와 사회적 생활의 관계/일(-) 교역자-사회개조와 기독교/이대위-사회주의와 기독교사상/이건춘-세계평화와 종교의 직분/이대위-나의 이상하는 바 민족적 교회/유경상-사회주의자 예수/신홍우-혁명과 종교/김창제-민중의 종교/조봉욱-종교가도 혁명이 될 수 있을까?/조만식-기독교와 실생활/김활란-예루살렘대회와 금후 기독교/모윤숙-현대 학생이 요구하는 기독교/기독교계 제씨-현대 조선기독교의 약점 및 고조할 점/이광수-그리스도의 혁명사상/전역생-아인스타인 박사의 종교관/한산-진화론의 비조 다윈과 종교계의 거두 칼빈/홍병선-십의 구원과 육의 구원/김윤경-중세철학과 기독교/강백남-조상숭배는 우상이 아님/조선교회의 교역자 문제/김필수-조선문화와 제종교/
정치사상(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신홍우-데모크라시의 의의/안국선-레닌주의는 합리인가/윤근-공산주의의 사조사/더취-세계평화와 3대 기초문제/라의수-민중운동의 실현/이대위-최근 세계적 운동인 합작사업의 개관/신홍우-민본주의와 독재주의/김준성-사회주의의 의의
직업관(노동, 직업, 윤리관)	한치진-자유와 책임문제/홍병선-개인주의/하경덕-현대 사조문제와 우리의 태도/김영의-사상적 회의와 혼돈에서/안국선-경제상으로 본 반도의 장애/홍병선-졸업생과 취직문제/윤근-노동문제 발달사
경제관과 경제윤리	이풍재-지주와 작인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김유연-세계산업의 추세/이대위-세계각성 중 반도의 노동문제/홍병선-산업신용조합에 대하여/강명석-존 러스킨의 경제사상/강명석-칼 맑스의 경제사상/신홍우-정말(덴마크)의 협동조합/손봉조-세계적 공황과 조선경제/김원근-조선 중세 상업가/불노생-조선 인삼의 원인 연혁

12) 주요 주제별 글 제목은 본 연구자가 개요를 살펴 정리한 것이며 대표성 있는 글들을 발췌하여 분류한 것임.

<p>농촌운동 환경의식</p>	<p>최병현-조선의 농촌문제/이대위-민중화할 금일과 농촌 개량문제/김창제-농촌과 기독교/신홍우-농촌개발에 대한 실제적 요구/김성원-농촌문제의 이론과 실제/이기태-정말(덴마크)의 농업/신홍우-농촌사업의 3대강령/홍병선-농민수양소에 대하여/청완-농민독본/이훈구-농촌청년은 자각하여야겠다/이기태-농촌으로 가자</p>
<p>인격형성과 교육</p>	<p>이성관/윤치호-불국(프랑스) 교육제도와 인격양성 문제/윤치호-영국교육제도와 인격양성/신홍우-조선교육의 현상/이대위-현대 구미인의 교육사상/김영의-구미교육의 추세/주간-일천만원과 민립대학/신재갑-교육의 데모크라시/김창제-학교 스트라이크에 대하여 그 해결책이 여하?/이동제-미국 학생생활/홍병선-조선인 된 오인의 장래/이대위-금일 조선이 요구하는 인물</p>
<p>여성이해와 여성운동</p>	<p>강매-여자문제의 근본적 해결/최창현-부인운동/이덕봉-여자의 역사적 관찰과 그 장래/이대위-여자의 경제적 독립/신동기-페미니즘/유각경-여자의 해방과 경제자유/김메례-부인운동에 대한 사적 고찰/유각경-우리의 기대하는 신여성/김활란-여자교육에 유의하는 한 사람으로서/김활란-조선여자운동의 금후/황순덕-조선여자 경제운동의 제일보/김원근-조선 여자교육의 효시</p>
<p>결혼 및 가정윤리</p>	<p>바보-연애는 신성한가/일(一) 기자-이혼문제/신홍우-가정과 연애/석천-나의 고찰한 바 기독교의 혼인관/허벗 그레이-연애/김활란-연애 결혼과 매각 결혼/리기태-산아제한과 어머니의 건강/홍병선, 송진우, 김지환, 안재홍, 신알부터, 강매만-남녀교제에 대한 제씨의 고견/이갑수-성교육에 대하여/이순탁-최근 조선의 결혼연령 연구</p>

III. 일제강점기 「청년」 발행의 역사적 의의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35년에 이르는 긴 기간이며 한국이 본격적으로 근대화 과정에 진입한 초기단계에 위치한다. 「청년」은 1919년 일제의 무단정치가 종료되고 문화정치가 돌입하면서 기독교청년들이 신앙정체성과 본분을 성찰할 수 있도록 발행한 YMCA의 기관지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특별히 이 저널은 기독교 종합잡지로서 보수와 진보, 좌우의 양 진영을 아우르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견지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한 집필진이 참여함으로써 뛰어난 에큐메니즘의 노선을 보여주었다. 특히 발행기간이 20년 이상이라 1920년대의 문화정치와 1930년대의 군국주의 전시체

제라는 시대적 변화의 추이도 깊게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이 저널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한국인들에게 이데올로기로서의 식민정체를 이식하려 했던 시점에서 한국 기독교청년들에게 ‘신앙정체성과 본분’을 고취해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대의를 담고 있다. 한국기독교는 문화정치라는 명분이 가져다 준, 사상적으로 다소 느슨해진 틈을 노려 문서선교에 최선을 다했고 그 일환으로서 서적출판과 보급에 박차를 기했다.¹³⁾ 따라서 「청년」은 문화정치의 사상적 틈새를 최대한 역이용함으로써 신앙정체성과 본분을 고취한 신앙적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를 담았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무단 경찰제도나 소학교 교사들에게까지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고 가르치게 하던 무단교육이 폐지되고 한국인들에게도 언론기관을 허용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혹은 각종 잡지류의 발간을 허용하는 등 문화정치라는 명분을 실천했다. 1920년대 들어 창간된 저널들만 해도 「농민생활」, 「등대」, 「반도지광」, 「백합화」, 「사관」, 「사명」, 「선천」, 「성광」, 「성서강대」, 「성서조선」, 「시조」, 「신생명」, 「신가정」, 「영과 진리」, 「우리 가정」 등 다양한 문헌들이 발표되었다.¹⁴⁾ 또한 독본류(讀本類) 중에서는 「수양독본」, 「어린이 독본」, 「농민독본」, 「노동독본」 등 여러 저작들이 출간되었으며 근대지식 체득 차원에서 각종 계몽서들이 발행되었다.¹⁵⁾ 1919년 일제의 문화정치 표방과 더불어 한국기독교는 문서선교라는 새로운 지평을 맞았으며 특별히 「청년」은 당시 기독교청년운동을 활성화하고 신앙정체성과 본분을 고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주목할 사안으로서, 일제는 표면상

13)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서울: 홍성사, 2017), 261.

14) cf.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410-423; 김봉희,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1882-194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7), 15-43; 노고수, 『한국기독교서지연구』 (부산: 예술문화사, 1981), 37-154.

15) 허재영 외 4인 공저, 『일제강점기 계몽운동의 실제』 (서울: 경진, 2019), 62-63.

으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한국민에게 자유를 주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그들의 식민사관을 이념화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했다. 한일합방의 명분을 합리화함으로써 민족문화 말살, 이념적 식민사상 주입, 와다제 츠네요시(渡瀬常吉)가 주동한 일제 조합교회의 한국신자들 포섭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인을 황국신민으로 종속시키고자 했으며 한국기독교인들의 신앙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¹⁶⁾ 청년층과 관련하여 청년교육은 사회교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었지만 일제는 청년층을 사상적으로 회유하기 위해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각종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주입했으며 1922년 발행된 강하영의 『이십세기 청년독본』 역시 일제에 순응하는 순종형의 인간관을 형성하는 데 역점을 둔 저서였다.¹⁷⁾

둘째, 「청년」은 청년회가 점차 전국 각지에 뿌리를 내려 규모가 확장될 무렵 이들을 지도해주어야 할 ‘신앙적 교육서와 지침서’가 필요할 때 시의 적절하게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YMCA는 1918년 11월 들어 활발하게 사역을 전개했는데 당시 종교담당 간사이던 김필수를 비롯하여 신흥우, 오화영, 오공선, 박희도, 정춘수 등이 강사로 나와 신앙에 입각한 민족자주독립과 민주주의 회복을 주창했다.¹⁸⁾ YMCA는 일본에서의 2·8 독립선언과 아울러 3·1운동 당시 외국의 동향을 국내에 전하는 핵심적인 전령사로 활동했으며 특히 신흥우는 국제여론을 형성한 주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1923년에는 겨울 농촌 조사를 마친 후 모든 국민의 경제적

16) 안수강, “일제 문화정치 초엽 김활란의 신앙정체성 분석: 설교문 ‘두려워하지 마라’(1921)와 찬송 가사 ‘풍량에서 구원함’(1921)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38(2021), 170. cf. 土肥昭夫, 김수진 역, 『일본기독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1), 289-290; 길진경, 『영계 길선주』 (서울: 종로서적, 1980), 283.

17) 허재영, 『일제강점기 어문정책과 어문생활』 (서울: 경진, 2011), 359, 361.

18) 구한말 민족 패망기의 독립운동 양상은 해외망명과 독립군 조직, 자결 혹은 의병조직, 청소년교육과 민중계몽을 통한 독립모색 등으로 대별되는데 YMCA의 독립운동은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451.

향상, 사회적 단결, 정신적 소생 등 3대 강령을 발표하여 농촌사업에 착수했다. 이듬해 1924년에는 한국YMCA가 일본YMCA에서 분립하여 한국 단독으로 YMCA 세계연맹에 가맹하는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¹⁹⁾ 이처럼 YMCA가 점차 발전해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기관지 「청년」은 1920년 창간된 이래 1940년 전시체제에서 강제 폐간되기까지 20년 간 지속적으로 발행되어 소명의식, 목적의식, 가치관, 진로설정, 신앙과 사회참여의 일체화 등 청년운동의 맥락을 꾸준히 선도하는 가늠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나아가 흩어진 국내외 기독교청년들이 일체가 이를 수 있도록 견실하게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필연적인 결정체이기도 했다. 한편 지방조직을 보더라도 1914년 개성에서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가 조직될 당시 지방청년회로는 유학생 위주의 재일본 한국 YMCA 하나뿐이었지만 3·1운동 이후부터는 함흥, 선천, 평양, 대구, 광주, 원산, 전주 등 전국적으로 YMCA가 확산되면서 1925년 말까지 도합 10개 지방청년회가 조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각 학교별로도 학생청년회가 설치되면서 1921년 말에는 전국 12개 학교에 조직되었고 1925년에는 18개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특기할 만한 사례로서 1906년 재일본 도쿄 YMCA가 창설되었던 것처럼 북경대학에 재학하던 이대위, 문승찬, 로하(路河)중학의 장자일 등이 주동하여 1920년 겨울에 고려청년회를 창설했다. 1924년 연합위원회에서는 고려기독교청년회의 가입을 허락하는 동시에 간사봉급 보조로 연 6백 원을 모금한 것으로 보아 상당기간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셋째, 「청년」은 20년에 걸쳐 장기간 발행된 저널로서 해방 전 ‘청년층의 신앙과 본분을 주도한 사상적 지주’가 되는 문헌이었다는 점에서 주목

19) 전택부, 『한국 에큐메니칼운동사』 (서울: 홍성사, 2017), 81-93.

20)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264-277.

해야 한다. 당대 기독교청년층을 대상으로 보급한 또 다른 저널로는 기독교면려회의 기관지 「진생」(眞生)²¹⁾이 있었지만 1925년 9월에 창간된 이래 1930년 12월까지 불과 5년여에 걸쳐 70권 정도만 출판되었고 실질적으로 청년층을 대변하는 최상의 저널은 「청년」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청년」은 앞서 [표 2]에서 소개했듯이 ‘청년 주역의 사회개혁운동’, ‘종교사상과 사회운동 & 평화주의 실현’, ‘정치사상(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직업관(노동, 직업, 윤리관)’, ‘경제관과 경제윤리’, ‘농촌운동과 환경의식’, ‘인격형성과 교육’, ‘여성운동’, ‘결혼 및 가정윤리’ 등 여러 영역에서 청년층의 시야를 열어주는 교육서이자 지침서를 겸한 저널로서 해방 전 기독교 청년들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발휘했다. 최재목은 “일제강점기 한국철학의 재발견-대중매체와 사적 글쓰기를 중심으로-”에서 잡지, 대중매체를 통한 사상 연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철학사상을 공적 글쓰기 형태로 드러내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한국철학사상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인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연구대상에서 간과되거나 배제되기 쉬운 당시 발행된 신문·잡지 등의 대중매체나 사적 글쓰기 자료들을 조사·수집·정리하는 작업이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²²⁾ 「청년」은 조선기독교청년연맹의 기관지이자 신앙잡지의 성격을 갖는데,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행된 사상 잡지로서 의미를 갖는다.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잡지 디지털화 자료에도 극히 일부분만 체계성 없이 소장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그동안 이 잡지가 공개적으로 소개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

21) 「진생」 창간호에는 기독교면려회를 설립한 목적, 사회전반에 침투하는 영적인 의무, 미래를 향한 비전 제시 등을 담았다. 안수강, “1920년대 중후반 ‘기독교면려회’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眞生」(1925-1930)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4(2021), 930.

22) cf. 최재목, “일제강점기 한국철학의 재발견-대중매체와 사적 글쓰기를 중심으로-,”(한국연구재단 2006-324-A00009 특화주제연구 연구과제 보고서).

문에 학술적 연구 작업 또한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IV. 「청년」 발행의 신학적, 기독교윤리적 의미

지난 역사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일에 어떤 신학적, 윤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문헌들을 살펴다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 공동체와 기독교인들이 성경과 교리라는 텍스트에 이론적으로만 함몰되어 우리나라와 공동체가 당면한 실천적 문제들에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즉 현실의 행태를 고민하며 역사적 문헌 속에서 윤리적 책임을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면에서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잡지인 「청년」은 당시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사상적 지평을 추적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윤리의식은 무엇이었을 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얻게 된다. 「청년」지의 다양한 저자들은 현대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옹당 최선의 과제로 접근할 수 있는 선과 악의 문제, 행위와 행위자의 문제에 앞서서 기독교인의 내면을 성찰하여 유일신 사상을 어떻게 수호할 것이며 신앙 정절을 견지할 수 있을지 질문했다.

3·1운동 이후 일제 문화정치의 이완된 틈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헌들이 출판되었는데,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에서 다양한 문서선교 활동에 박차를 기하는 전환기를 맞았지만 문헌 출판이 그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기령, 문화정치가 수행된 지 3년 후인 1922년 20인 한국인 교역자들만으로 발행된 첫 설교집 『종교계제명사강연집(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는 설교문을 작성한 과정에서 단문이나 장문에 해당되는 분량이 종종 “.....” 모양으로 삭제된 흔적들이 나타난다. 이는 총독부가 출판을 앞둔 강연집을 검열하는 과정에서 식민사관을 갖대로 삼아 삭제한 뼈저린 흔적들이

다.²³⁾ 일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일정 부분 자유를 주는 듯 했지만 식민사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수정, 삭제, 혹은 몰수 조치를 취했다.

3·1운동 당시 언론 통제정책에 의하면 문화정치를 시행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언론 및 민간신문 창간과 관련하여 경찰병력의 증원, 임시정부 해체 및 해외조선인의 행동통제, 관리들이 조선어를 배워 소통할 것, 총독부의 시정방침을 홍보하고 강화할 것, 대민정보 수집과 지침하달 등을 지시했다. 당시 일제의 언론 통제는 관동대지진과 조선의 언론 통제, 경성방송국 설립과 언론통제, 선전영화 및 미디어를 통한 언론통제 등에서 두드러진다.²⁴⁾ 1920년 4월에는 총독부 관방실에 활동사진반을 설치하여 한국인이 일본에 친숙한 감정을 갖도록 유도하고 소위 사회교화, 농산어촌의 진흥운동과 위생사상 보급 등에 활용했으며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했을 때는 시국인식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이처럼 선전영화제작과 상영활동은 그 실적이 점점 늘어 영화 회수만 해도 1920년에는 49회였으나 1937년에는 무려 392회에 달했다.²⁵⁾ 1930년대 들어서는 군국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1936년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이 부임한 후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의 모토를 강화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총독부 좌담회를 개최하여 신문, 잡지 기사 중 본국인과 조선인의 호칭을 폐할 것, 출신지는 부(府)·현(縣)·도(道)·정(町) 등 일본식으로 표기할 것 등을 지시했으며 총독부에서는 별도로 창씨개명을 하달했다.²⁶⁾ 1942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취임한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총독은 조선민중에 대한 전력(戰力) 증

23) 한석원 편, 『종교계제명사강연집』(경성: 활문사서점, 1922), 41, 53, 64, 93, 96, 99, 121, 169, 168, 183, 185, 129, 222, 230, 236. cf. 한경국, “한국 최초의 절기 설교집 종교계 저명사 강연집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1(2018), 150.

24) 이연, 『일제강점기 조선언론 통제사』(서울: 박영사, 2013), 275-365.

25) 위의 책, 354-358.

26) 위의 책, 438, 433.

강책과 언론통제에 관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총독부출판통제협의회를 설치했으며 전시 하에서의 출판물 통제기구로서 신문잡지용지 협의회(1939), 신문잡지용지 통제위원회(1940), 일본출판회(1942) 등이 속속 설치되었다. 출판물 승인 선결방침으로는 저자와 편자의 인물경력, 조선의 특수사항에 의해 보는 적부(適否, 國體本의 民族의 識 皇民자질 등), 출판기업 전반에 의해 보는 요부(要否), 동종 기간(既刊) 출판물의 유무 등을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규정했다.²⁷⁾ 한편 총무국장의 승인 하에 신문, 잡지, 단행본 등을 출판하지 않을 경우 용지배급을 제재하여 사실상 서적출판을 금지시켰으며 차츰 한국어 신문들이 모두 사라지고 1942년도에는 「조광」, 「춘추」, 「대동아」, 「신시대」, 「야담」 등 단지 몇 종만의 저널들만 남아 있었다.²⁸⁾ YMCA 기관지 「청년」은 1940년에 폐간 조치되었다.

미나미 지로 총독이 부임한 1930년대 중반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가 강화되기 시작한 무렵부터 YMCA는 점차 존립마저 위태로운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그 징후는 1935년 8월 27일에 회합을 가진 YMCA의 마지막 하령회(夏令會)에서 나타났다. 이 마지막 하령회에서는 포어 '차라자'에 대한 회장 윤치호의 개회연설에 이어 기도회, 성경연구, 강연, 원탁회의, 좌담회, 역사 강의 등이 있었다. 종래의 하령회 규모로 개최할 수 없어 수양회(修養會)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는 당시 시국이 얼마나 긴장상태였으며 YMCA를 운영하기에 힘든 여건이었던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일례라 할 수 있다.²⁹⁾ 1936년부터는 윤근이 간사로 부임하면서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체육활동 위주로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³⁰⁾ 1937년에는 마침내 사회 농촌운동을 지도하던 YMCA 농촌부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

27) 위의 책, 483-486.

28) 위의 책, 490-491.

29)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447-448.

30)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449.

듬해 1938년 9월에는 일제 정책의 일환으로 YMCA가 해체되고 말았다.³¹⁾ 그러나 YMCA가 해체된 이후에도 1940년 12월까지 2년 이상 「청년」이 발행되었다는 것은 이 기관지가 그만큼 생명력 있는 저널로 큰 영향을 미쳤고 오랜 기간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는 근거가 된다.

기독교윤리는 언제나 다양한 차원에서 효과적인 공적 담론을 형성하며,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장해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제강점기란 특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던 한국 기독교 공동체는 유입 단계에 있던 기독교 사상과 문화를 담은 다양한 담론을 게재한 저널을 연속해서 발행함으로써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사회로 확장시키는, 일종의 문화 선교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려할 것은 당시의 출판 활동은 영상 미디어가 주류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본 논문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윤리 관련 문헌을 탐구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특히 YMCA 기관지인 「청년」은 개인이나 소수가 아닌 기독교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글을 담은 공동의 논의라는 특성이 있다. 현재적 시점에서 보면 기본적인 교리 요약이나 성경 구절을 반복하는 단편적인 글들로 보이는 것도 많이 실려 있지만, 개인윤리 영역과 사회윤리 영역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글들도 많이 게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글들이 양적으로 천 편을 훌쩍 넘길 정도로 산재해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는 한국 역사 속에서 근대화의 과정인 동시에 기독교와 교회가 위협받고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윤리나 사회윤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회와 교회를 조망하여 당 시대의 현실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뛰어난 식견

3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503.

들을 드러내고 있다.

청년지의 탐색과 연구는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 고문헌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또 하나의 방법론을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기독교 윤리 관련 문헌인 『신자생활의 첩경』, 『그리스도모범』 등 다양한 기독교 초기문헌을 연구한 성과물도 한국교회 초기 주요 사상가들의 기독교윤리 수용과 이해를 고찰한 연구에 속한다.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그리스도모범』(1929)은 기독교 전래 초기의 교리서에 비해 매우 체계성을 띠었고 생활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³²⁾ 이 연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가정, 교회, 국가 등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실천해야 할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전개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일제강점기 문헌인 「청년」을 분석한다면 거시적인 틀에서 한국적 신학과 기독교윤리의 소재가 무엇이었는지 통시적 지평에서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비롯해서 「청년」 창간호부터 마지막호까지 발간된 글들을 분석하여, 기독교청년회의 창설 이념과 노선을 고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게재된 글들의 분석을 통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기독교윤리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청년」 창간호는 급변하는 시대이자 사회가 부패했다는 점, 이러한 시대를 선도함으로써 기독교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 그 중추적인 책임과 의무가 기독교청년들에게 부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³³⁾ 이런 강조점들은 발간호에 따라 다양한 필자들의 내용과 주장을 담게 된다.

32) 이장형, 안수강, “『그리스도모범』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윤리—국가관과 노동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6(2015. 4), 93-126.

33) 이장형, “〈게자씨〉(1933-1934)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기독교윤리 담론,” 『기독교사회윤리』 40(2018), 179-210.

V. 나가는 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신앙은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적 영향력 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학 특유의 방법론을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회와 소통할 수 없는 신학적 논의는 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까지 이에 상응하는 한계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청년’이라는 연속 간행물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사회상을 새롭게 조명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고전 잡지 전문가 뿐 아니라 학생, 학자, 목회자, 일반 시민 등을 향해 기독교 전통의 사상적, 실천적 윤리 관점과 담론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고전적인 문헌 연구 작업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품은 신학적 성찰과 기독교윤리적 담론을 통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의 새로운 윤리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제 분야에서 그렇듯이 우리 사회는 윤리관에 있어서도 세대 간, 계층 간, 활동 분야와 종사하는 직업 등에서 상당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보는 시각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기독교 공동체 앞에 놓여져 있다. 상당 기간 지속된 공동의 담론을 담고 있는 잡지를 통한 새로운 평가와 해석은 윤리학적 논의의 통합, 새로운 윤리 의식을 발견하게 하며, 사회적 갈등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길진경. 『영계 길선주』. 서울: 종로서적, 1980.
- 김봉희.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1882-194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7.
- 김필수. “首辭.” 『청년』 창간호(1921), 1.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노고수. 『한국기독교서지연구』. 부산: 예술문화사, 1981.
- 안수강. “일제 문화정치 초엽 김활란의 신앙정체성 분석: 설교문 ‘두려워하지 마라’(1921)와 찬송 가사 ‘풍랑에서 구원함’(1921)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38(2021), 166-206.
- _____.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靑年』(1921-1940)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9(2022), 631-667.
- _____. “정경옥(鄭景玉)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신학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43(2019), 153-187.
- _____. “1920년대 중후반 ‘기독면려회’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眞生』(1925-1930)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4(2021), 923-950.
-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 『靑春』 11(1917), 76-83.
- _____. “耶蘇敎의 朝鮮에 攄 恩惠” 『靑春』 9(1917), 13-18.
-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이 연. 『일제강점기 조선언론 통제사』. 서울: 박영사, 2013.
- 이장형. “〈계자씨〉(1933-1934)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기독교윤리 담론.” 『기독교사회윤리』 40(2018), 179-210.
- 이장형, 안수강. “『그리스도 모범』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윤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6(2015), 93-126.
- 장덕수. “축 「청년」 창간.” 『청년』 창간호(1921), 2.
-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서울: 흥성사, 2017.
- _____. 『한국 에큐메니칼운동사』. 서울: 흥성사, 2017.
- 최재목. “일제강점기 한국철학의 재발견-대중매체와 사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2006-324-A00009 특화주제연구 연구과제 보고서).

- 하희정. 3·1운동 이후 담론공간의 탈정치화와 젠더에 대한 사회적 논의-YMCA · YWCA의 「청년」을 중심으로.” 『韓國教會史學會誌』 40(2015), 169-213.
- 한경국. “한국 최초의 절기 설교집 종교계 저명사 강연집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1(2018), 147-174.
- 한석원 편. 『종교계저명사강연집』. 경성: 활문사서점, 1922.
- 허재영. 『일제강점기 어문정책과 어문생활』. 서울: 경진, 2011.
- 허재영 외 4인 공저. 『일제강점기 계몽운동의 실제』. 서울: 경진, 2019.
- 土肥昭夫, 김수진 역. 『일본기독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1.
- Rauschenbusch, W.. *Social Principles of Jesus*. 고영환 역. 『耶蘇의 社會訓』.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0.

논문투고일: 2023년 02월 20일

심사개시일: 2023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3월 29일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은 해방 전 YMCA에서 1920년대 문화정치기와 1930년대 전시체제를 거치며 20년 이상 꾸준히 출판하여 보급한 기관지 「청년」을 통해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 측면에서 기독교윤리학의 정립에 주목하였다. 「청년」은 1919년 일제의 무단정치가 종료되고 문화정치에 돌입하면서 기독교청년들이 신앙정체성과 본분을 성찰할 수 있도록 발행한 YMCA의 기관지였는데, 이 저널은 기독교 종합잡지로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아우르면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견지했다. 다음과 같이 그 역사적, 윤리적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저널은 사이토 마코토가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한국인들에게 이데올로기로서의 식민정체를 이식하려 했던 시점에서 한국 기독교청년들에게 ‘신앙정체성과 본분’을 고취해주었다.

둘째, 「청년」은 청년회가 점차 전국 각지에 뿌리를 내려 규모가 확장될 무렵 이들을 지도해주어야 할 ‘신앙적 교육서와 지침서’가 필요할 때 시의 적절하게 출판되었다.

셋째, 「청년」은 20년에 걸쳐 장기간 발행된 저널로서 해방 전 ‘청년층의 신앙과 본분’을 주도한 사상적 지주가 되는 문헌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주제어: 「청년」, 기독교청년회, 기독교윤리, 일제강점기, 언론검열, 문화정치
